

광주세계양궁선수권 D-24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 자원봉사자들이 11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에 참석해 대회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대회 성공 개최 위한 원동력은 광주시민입니다”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Hyundai World Archery Championships

광주시가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302명의 시민 자원봉사단과 힘을 모은다.

▶관련기사 16면

광주시 세계양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열고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시민 자원봉사자 발대

통역·안전·운영 등 302명 배치

대회 기간 실무 중심 현장활동

강기정 시장 “광주 빛내주기”

발대식에는 조직위원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광주시의회 명진 교육문화위원장,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 한상득 광주시장에인체육

회 수석부회장,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 이종호 광주시장에인양궁협회장, 류미수 광주시자원봉사센터장, 최미선 리우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광주시립창극단 축하공연, 자원봉사자 대표 위촉장 수여, 인사말·격려사, 결의문 낭독, 성공 개최 퍼포먼스,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9개의 화살이 과녁에 명중하는 양궁 퍼포먼스를 통해 대회 성공 개최를 향한 자원봉사자들의 각오와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 이후에는 자원봉사자 소양교육도 함께 진행돼 대회 운영 개요, 자원봉사자 역할과 자세, 안전관리 및 위기 대응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현장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는 총 302명의 자원봉사자가 선발됐다.

이들은 경기 운영, 현장 지원, 안전관리, 외국어 통역 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돼 활동할 예정이다. 9월 대회 개최에 앞서 세부 직무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오는 9월5-12일 열리는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9월22-28일

열리는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로 나눠 진행되며 광주국제양궁장 및 5·18민주광장에서 경기를 치른다.

두 대회에는 이날 기준 77개 국가 1천2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는 시민 참여, 교통, 숙박, 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힘, 그 시작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이라며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은 평화의 올림픽으로 세계 속에 퍼져나갈 것이다. 광주를 자랑스럽게 빛내 달라”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정치활동 길 열린 조국…地選 ‘민주 vs 혁신’ 대결 ‘꿈틀’

정부, 83만6천687명 특별사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관련기사 4면

광주·전남에서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는 조국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11일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천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총선·단체장 재선거서 파괴력 입증

광주·전남 민주당 민심 이반 상존

‘혁신당 바람’ 몰아칠 가능성 촉각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천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특히 기간제 공무원 채용 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던 박우량 전 신안군수와 조국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아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도 포함됐다. 윤경연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와 홍문종·정찬

민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내년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맞대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랜 기간 민주당에 대한 지역 내 민심 이반이 축적돼 있는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가 자유의 몸이 된 만큼 혁신당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예상도 적지 않아서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해 10월 영광군수·곡성군수 재보궐선거와 올해 4월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파괴력을 입증하며 민주당과의 치열한 대결 구도를 형성한 바 있다.

실제 영광군수·곡성군수 선거에서는 혁신당 후보가 석패했지만, 담양군수 선거의 경우 정철원 후보가 당선되며 민주당의 아성을 무너뜨렸다.

게다가 지난해 총선에서도 혁신당은 광주 47.2%, 전남 43.9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비례정당 투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별사면·복권으로 정치활동 길이 다시 열린 조국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며 광주·전남 단체장 선거에 ‘울인’할 경우 파괴력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일관된 관측이다.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볼 수 있듯 민주당 공천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기초단체장 후보군이 대거 혁신당으로 옮겨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민주당 공천=당선’ 공식은 성립되기 힘들다. 유권자의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치열한 본선 경쟁이 벌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단체장 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원 선거와 비

례대표 선거 역시 혁신당 바람이 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혁신당의 지역 내 세력화가 속도를 낼 경우 민주당의 대응이 어떤 형태로 발현될지도 관심사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에서 혁신당의 득표력은 이미 입증됐다”며 “지역 민 사이에 잠재돼 있는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혁신당 바람을 일으킬 경우 내년 지방선거는 결과를 예상하기 힘든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진수·김재정 기자

Today

윤두서 ‘세마도’ 진본 321년만에 첫 공개 5면

aT-GIST, AI로 농식품산업 혁신 나선다 12면

후반기 승률 최하위 KIA, 투수코치 교체 16면

제17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접수마감
10.15
도착분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접수 인정

주최 광주매일신문, 광주매일TV
주관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공모 분야

출품자격 일반부문 - 제한 없음 / 특별(학생)부문 - 사진에 관심있는 중·고 재학생
출품료 1인당 30,000원 (단, 학생부 출품료 없음)
작품내용 미발표 작품으로 미품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
작품규격 컬러, 흑백 11"×14"(정장불요)
접수처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5 삼호센터 8층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연락처 062-234-2323
출품수 4점 이내
작품 뒷면에 명제, 주소, 성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일반·학생)기재
심사일시 2025년 10월 21일(화)
심사장소 광주국제교류센터 강당 (다목적실) 예정
심사발표 2025년 10월 23일(목)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 www.pask.net /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및 지상(예정) www.kjdaily.com
시상식 일시 및 장소 2025년 11월 12일(수) 오후 2시 / 광주국제교류센터 강당 (다목적실) 예정

시상 내역

- 일반 공모 부문
 - 대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부상 200만원
 - 최우수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부상 100만원
 - 우수상(2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부상 50만원
 - 특선(입선10%이내)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 입선(출품수의 20%이내) 입상작 포함,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 특별(학생) 부문
 - 대상(2점) 광주광역시 교육감 상장 및 메달
 - 최우수상(1점) 광주매일신문 사장 상장 및 메달
 - 특선(5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및 메달
 - 입선(50점 내외)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장
- 초대작가상
 -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동우회장 상배
 - *초대작가 합산 15점 이상 인정(대상 6점, 최우수상 5점, 우수상 5점, 특선 4점, 입선 2점)은 본 사진대전 초대작가로 추대한다.

작품반출

접수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고 시상식 후 상장과 작품집만 발송함. (단, 광주지역 출품자는 동우회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요함)

기타 사항

- 특전 초대작가 제도 운영 (본 대전에서 총 접수 15점 이상 취득한 자)
본 대전 입상자는 광주매일신문 사진동우회 회원 자격을 부여함. (단, 입상경력 2회 이상)
-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나 주최측에선 수상작에 한하여 도서출판, 홍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상, 입선자의 원본파일은 5일 이내에 성명, 제목을 기재하여 brcm@naver.com으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상권취소됨)
 - 수상작과 관련한 초상권 분쟁은 출품자가 책임져야 함.
 - 초대작가 작품 e-mail 제출 (cjkang2323@naver.com), 출품시 주소, 성명, 명제, 연락처 기재요망